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90호 [루체 제 26064호] 주제 107 (2018)년 7월 9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꽂바구니 진정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조국 강산에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담백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 언덕으로는 일천단식 위대한 수령님을 주제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밟아 모시고 수령의 유훈한 천전에 애국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는 군중들의 풍경이 풀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꽂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투례, 청권 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



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편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부의 명의로 편 꽂바구니가 진정
되었다.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
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부강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끌어온
과 비범한 명도력으로 민족사
번영할 사회주의 강국의 만년토
직정 속에 둘이 켜보며 위대한
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업적
들을 창이울려온 절세위인들의

침을 살피면서 꽂바구니를 끌어온
우리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력을 끌어온 끝을 걸을 줄은 참마다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
종합대학, 인민무역성,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어버이
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도 그리움의
대학가 걸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편 꽂바구
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
되었다.

각자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
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
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판결을 위한
정체 견실대 전군에 충매진함으
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정중히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6(1947)년 7월을 비롯하여 어려운 시기에 걸쳐 꽂바구니를 안겨 주시면서 세 멘트생산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승업하게 형상화되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꽂바구니를 끌어온 데서 영광입니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은 인류사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칭송

비범한 사상리론에 지와
특별한 명도로 사회주의 위업, 인류
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원을 펼쳐
주시였다.

리제티의 아들 우명은 올해
김정은위현장동지께서는 세 차례나
방문하시여로세대혁명가들께서
세계에서 주제인민주주의인민공화
국원정회원회원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화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헌신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div

주체의 최고성지에 끝없이 흐르는 그리움의 대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둘에

여 달한다.

7월은 사람도 산천도 사무치는 그

리움으로 더욱 불리는 계절이리고,

어느덧 24년째월이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간절한 그리움

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강

렬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쟁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영구

불멸할 업적으로 하여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인민, 가장 행복한 삶을 누

리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아니

던가.

바로 그래서이리라.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풍겨져흐르

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풍성한 마음이란가 아름

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그윽한 향

기풍기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각계층 사민들이 끝없이 들어서고있

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이 나라 천만

아들딸사이에 가장 강렬하고 진실

한 혼연일체의 정이 뜨겁게 물결치

고있는 여기 태양의 성지에서 우리

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절감하며 무

엇을 받아안았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

공화국의 기초파와 승리와 번영의 70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내 나라의 자랑도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는 자강도를 돌아보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었다.

『자강도인민들은 가장 어려웠던 때 우리 당과 사상교 못, 습관을 같이하며 고난과 시련을 완장에서 해쳐온 것처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강도를 더욱 살기 좋은 교장으로 만들며 강성군건설의 충진군에서 전위대로서의 영예에

를 계속 빛내여야 합니다.』

번영의 새시대가 굽이쳐 흐르는 우리 조국땅에 고난의 행군승리의 대기념비로 놓나는 역사의 땅 자강도, 전국의 첫 기슭에서 우리 수령님 몸소 창설해 주시고 어머니 우리 당이 신념과 기적의 화길로만 이끌어 사회주의학원의 창업을 봄우리로 우뚝 세워준 내 나라의 자랑도이다.

락원의 항로의 영원한 등대—장자강의 불야경

보호에 데단히 유리하며 또 견설에 드는 로록과 차체, 시간을 훨씬 짧아 할수 있겠지만에 아주 실력이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나서야 우리의 호기심은 비로소 풀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울발구를 끌고 눈높이로 토전으로 향하는 자강도 인민들과 실종의 대회를 나누시며 저런 인민들을 하늘땅 끝까지도 함께 갚수 있다고 교시하신 가슴을

거운 사연이 깊은 그 길을 따라 화평군으로 향하는 우리의 귀전에서는 광강3호군현행현수천을 이어온 광강군안의 어미 중소형수력발전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물었다. 마치 자강도의 자랑중에 제일 큰 자랑은 도처에 일어서는 발전소들이 우리와의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주려는 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애로 럭셔리 아로새겨진 혁명의 천리길로 정평을 따라 화평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벼슬수 감돌아흐르는 뿐만 산기슭에 멎정이 허양각마냥 들어온 광전소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면서 광전로를 걸었고 방방도 달리고 목욕풀도 립하며 조명도 보장하게 하자는

것은 혼술립집천기회의 목표라고 가르쳐주신 그 사업 일과 오늘도 기운차게 틀어가는 부무청년발전소.

땅속에 찾아들었던 물이 언제까지 이에서 솟구쳐 털어 한계과 가물풀에도 물작정을 모르고 달чин기를 범벅 없이 풀린다니 그것을 어찌 자연의 조화로만 하라. 이는 본명 외진 산풀비율인들에게도 묻고하고 행복한 생활을 미련해주시며 그토록 마음 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안이 눈물운 현실이었다.

이제는 군인들이 전기로 방을 냉하고 밤을 지어먹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화평군원군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후더웠다. 나리월현 그 새월을 운을 막은 걸에 퍼워올리는 고발불 아래 헛벗은 아이들, 허리굽은 노부들이 길에 헛걸음을 허우며 뛰어왔다. 집집에 불이 예전에 터져지고 끊임없이 터져나온 그 소박한 발전기를 이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끗이 살아 라오르는 자연생생의 불에 뜨겁게 암보였기 때문에 우리 장군님 그리고 기뻐하신 것이다.

장자강에 일떠선 여러 발전소들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새차례 울리는 뜨겁게 굽과 인사를 나는 홍우 청년4호발전소건설장으로 향하였다.

『이 발전소의 인재는 고무언제로 일어서게 됩니다.』

고무언제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었던 우리는 통행한 도일군의 말에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고무언제를 이용하면 그안에 들어 한 공기를 려울때 언제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기에 문에 큰물이 지는 시기에 언제

북방의 굽이굽이 험준한 산악 어느 봄우리, 어느 풍자기이나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한 뜻 새겨져 있고 산간도시의 디비 하나, 진득길 하나에 조차 지어깊은 그 사랑 어려웠는 자강에서 성스러운 혁사를 거슬리보고 천관을 미화로 앞당겨보는 우리와의 기행길은 걸음걸음이 뜨거울이었고 자주자욱이 확신이었다.

서부터 굳건한 대전을 다져주시고 우대 장군님의 눈보라 강행군길 자우자축을 따라 일떠선 주체적전력공업의 거대한 위력이 있어 오늘 자강도에 세인을 끌어온 그 천관현단의 CNC 기계바다로 펼쳐질수 있었고 인민의 웃을소리도 날로 더 높이 울려퍼지는 자강도의 블레의 자강역에 대한 확신으로 삼장이 높뛰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토록 강행한 첫인상을 안겨준 장자강의 불야경의 의미가 더욱 유행하게 단거렸다. 그것은 진정 등데였다. 어제도, 오늘도, 배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지 않고 당성책을 맡았을 때마다 끝없이 써워온 자강도인민들의 자지생생, 전인발달의 두행정신을 제현한 혁사의 기념비를로 송행하게 단거렸다.

숙연한 마음으로 기행길을 이어가면 우리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밀을 드러느냐니 그 누구를 만나 보아도 풍족하게 쓰는 천기억에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다 해나간다고 자랑하는 자강땅사람들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전진 우리 수령님 경국의 초행길에

의 천필을 금빛현판으로 정히 모신 만포연하발전소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만포연하발전소』, 대를 이어 군일군들부터 산에서 살다실이 하며 수배와 산업매를 거두어들이 군한다 는 이야기, 원로직정유 모르는 지팡팡 업공장들에서 훌려여지는 생활환경화의 풍랑과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군의 멘모도 일신되어간다는 자랑을 가슴가득 알아볼수 있었다.

정녕 헤방전에는 농사지을 번번한 땅 한에 기초로 키워지 어려워 원망속에, 물물속에 바라보면 자강의 산이었다. 하나로 둘둘당시에는 목재와 기름은 물론 종이, 약재를 비롯한 갖가지 보물들이 목포처럼 풀어져나오는 황금산으로 전변되었고 있으니 파악 어느 누가 신을 노래하지 않고 자강땅의 눈부신 행복이 마중오고있을것인가.

잘고앞이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가슴깊이 되새겨지는 우리

의 기행길이었다.

도안의 인민들이 잘살 때까지

자강도에 해마다 오시겠다는 사람의 약속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허진 배를 그려놓고 침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직 달을 믿고 난판을 풀고자마자

자강의 행군길을 열어놓은 자강도인민들을 생각하면 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그토록 절절히 교시하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황금산, 보물산과 더불어 나답이 풍화는 오늘의 자강

땅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마.

이런 생각에 잠겨있느라니 우리에게는 어디서나 풀려오는 자강도인민들의 기쁨과 악관의 웃을소리가 예사롭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고려약생산의 엑스프레스를 실현하여 인민들의 경제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있는 강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어려운 군人们的 자강도인민들의 풍랑 속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일종으로 아름다워졌다.

창으로 그 어리를 가슴아이도 사실 자

강도사람들은 황금산, 황금덩어리를

천만리, 원수님따라 천만리

설의 주인공은 놀랄정도 펠레비온중계를 말이보는 종업원이었다.

『우리 자강도사람들이 우리 수령님들과 원수님의 자비에 봉사로 영광을 하루과도 범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삽니까.』

너무도 스스럼없이 풀어나오는 말이 있다. 이런 물같은 그리움으로 심장을 끌어우고있기 위해 시현의 나날

천만고생 다하시면 우리 장군님께 그토록 큰 힘과 기쁨을 드릴수 있은것 아니라. 이런 고열한 충정을 가슴에 품고 황금산, 보물산과 더불어 나답이 간직하고있기 위해 오늘도 고산진혁명사적지 찾고 찾으며 지난 조국전쟁용병들을 위한 든든한 원료기지로 전변시키

장군님따라 천만리, 원수님따라 천만리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높뛰는 자강의 불덩이 같은 짐장들이 앙아온 자랑한 결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정에 자강도인민들은 당시에 하려고 하는 것은 투조건 그대로 진행하며 당시에 투

장을 하나 해주어도 고맙게 받아들일줄 안다고 드립게 교시하시였다.

여기 북녘의 산악지대 자강땅에

든든히 자리잡은 최첨단기계제작공

업과 주체적전력공업의 위력도

기쁨과 기쁨이 암아볼수 있는 자강

도사람들의 불리는 일념이었다.

장군님의 정든 고장을 원수님의 정든 고장으로, 바로 이것이었다. 어

디어도 더럽게 암아볼수 있는 자강

도사람들은 보람과 긍지를 한껏 염

수 있었다.

이처럼 임업을 도가 솟구치는 기

본산막, 중심고리로 확고히 들어놓고

나가니 이제 머지않아 자강도의 모든 산들이 거대한 봉일날 가리, 비단봉으로 늘어나기로 산에서 수천리

여기로 가을길이 생겨갈게 하는

이 성스러운 글발달에 서니 수천리

기행길에 그간 맹길은 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

비가 우리의 짐장을 끌없이 걱정이

나가는 것이다.

한 힘들동안 몸질량이 거의 1만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누에가 충분히 먹

수울수 없었다. 말그대로 살미이었다.

신창집업원봉동농장은 비롯한

군인의 수많은 누에고치생산단위들

에서 마땅히 품질제고에 헌신하는

차등화된 자동차, 체재활물마디에서 쓰아

져내리는 농부신선한 고치포로...

여기 고을민이 아니라 시중, 성간

동 그 어려움에 가보아도 다 이런 풍경

을 놓고 볼수 있다. 이제 도에서 생산원

그 많은 고치들이 회현제사공장에 쌓

이게 되는데 그에 정답 청정하다는

일군의 일군에서도 우리는 모든 산

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잠업도

비단도의 세력사를 개척해

나가는 보람과 긍지를 한껏 염

수 있다.

여기 위에 데한 장군님께서 여기

자강땅에서 고난의 행군승리의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나는 그 힘을 풀고자 험한 힘

을 품고 청정한 풍경을 풀어놓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이런 혁신적인 일본새가 필요하다

통양광산 일군들 의사업에서

통양광산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워 생산장상화의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것만 놓고도 광산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얼마나 사소한 민족도 없이 짜고들며 책임으로 밀고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소방대식일본새를 애하고 자기부문, 자기단위 사업을 전망성격으로 밀고나가며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4월에 들어서면서 광산에서는 장마철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어느날 부기사장이 살 일군들이 모인 협의회에서는 장마철대책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확장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제일 힘을 냉여야 할 대상은 4, 5쟁이었다. 경안의로 반발총이 군은 암반으로 되어있다 보니 배수로가 깊지 못하여 물이 쉽게 넘어남 위험성이 있었다.

이날 협의회는 끝났으나 광산당원위원장은 기사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대책을 헤아렸다. 부처와 함께 근 2 000m 되었다.

발과를 끌어여여 빠른 기입

안에 배수로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압축기 문제가 진지하게 흔의되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사장되었던 3, 5m² 압축기를 원상복구하여 현생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배수로 공사를 짜고나갈 방도를 찾았다. 이와 함께 종합포장의 설비들을 재정비하여 마장천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따라세웠다.

건설적인 안은 편이 계기였다.

토의회에 올해에 백금산지구의 사방언제를 더 듣는지 보강하는 문제도 상정되었다. 백금산지구 사방언제는 길은 광지기에서 차리잡다보니 그 어느 지역보다 광지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뜻이 있다. 때문에 해마다 백금산지구의 사방언제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까지 참가하였다. 그러나보니 스쳐지났던 문제들이 더 제기되었다. 또 동보호감독일군은 때금산지구의 전용선수를 밟아온지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과 함께 일군들은 암반에 만족하지 않고 홀에 사방언제를 보강할 또 하나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회는 끝났으나 광산당원위원장은 기사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대책을 헤아렸다. 부처와 함께 근 2 000m 되었다. 발과를 끌어여여 빠른 기입

자연을 대상하여 생산전두를 벌려나가는 단위들에서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정황을 미리 타진하고 생산준비, 기술준비를 끝없이 일어우는 것은 우리 당시 대세우고 있는 정책적 요구이다. 정말 사소한 민족은 더 른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토의된 문제들을 외각적 해제하기 위한 노력 조직을 하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에게 투명한 전투목표를 제시하였다.

민틈없는 조직사업은 확실히 온 나에게였다.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압축기 조작과 사방언제에 광지피해를 막기 위해 모여 풍물제로 활발히 벌어졌다. 광모임일군들이 설비기조와 광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앞질러 보장하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하여 일군들은 장마철대책을 민틈없이 세우기 위하여 광장을 미리한 현장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하였다.

며칠후 광산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날마다 일군들을

과 사업자, 기술자들은 광장한

터지기로 광지피해막이에

받을 수 있는 뜻이 있다. 때문에 해마다 백금산지구의 사방언제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까지 참가하였다. 그러나보니 스쳐지났던 문제들이 더 제기되었다. 또 동보호감독일군은 때금산지구의 전용선수를 밟아온지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과 함께 일군들은 암반에 만족하지 않고 홀에 사방언제를 보강할 또 하나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회는 끝났으나 광산당원위원장은 기사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대책을 헤아렸다. 부처와 함께 근 2 000m 되었다.

발과를 끌어여여 빠른 기입

있게 진행되었다.

사방언제에서 일자리가 끊어졌다.

풀짜기 같다보니 수중수단을 허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 위원회의 지도밑에 참모부에서는 토목조직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비생산부문 종업원들을 위주로 하여 토목원 편성하고 당, 행정일군들이 직접 앞세워 광지에 광지피해를 벌려나갔다.

민틈없는 조직사업은 확실히 온 나에게였다.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압축기 조작과 사방언제에 광지피해를 막기 위해 모여 풍물제로 활발히 벌어졌다. 광모임일군들이 설비기조와 광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앞질러 보장하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하여 일군들은 장마철대책을 민틈없이 세우기 위하여 광장을 미리한 현장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하였다.

며칠후 광산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날마다 일군들을

과 사업자, 기술자들은 광장한

터지기로 광지피해막이에

받을 수 있는 뜻이 있다. 때문에 해마다 백금산지구의 사방언제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까지 참가하였다. 그러나보니 스쳐지났던 문제들이 더 제기되었다. 또 동보호감독일군은 때금산지구의 전용선수를 밟아온지의 문제를 놓고 광장이상 일군들의 협의회가 또다시 열렸다. 여기에는 노동보호감독일군과 함께 일군들은 암반에 만족하지 않고 홀에 사방언제를 보강할 또 하나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회는 끝났으나 광산당원위원장은 기사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대책을 헤아렸다. 부처와 함께 근 2 000m 되었다.

발과를 끌어여여 빠른 기입

정주철길대에 서

정주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나 하나 따져가며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실속있게 세워나가고 있다.

철길대에서는 장마철에 레일차와 회로차를 운행해 철길에 걸친 철길원들이 일군들이 참모부에서는 토목조직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비생산부문 종업원들을 위주로 하여 풍물제로 활발히 벌어졌다. 광모임일군들이 설비기조와 광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앞질러 보장하는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느라니 이들은 그 어느때보다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광지피해를 벌여온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생각하는 일군들은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광지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렸다.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전보적 인류가 대량의 존함을 경건히 불리며 가슴을 깊이는 7월이다.

세계는 그이께서 성스러운 혁명 생애의 전기인 일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해 바쳐온 크나큰 성과를 고려, 고귀한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실현을 통하여 자주는 역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 관계발전의 기초이라는 것을 확증 하시었으며 20세기 폭사의 흐름을 자주로 길로 이끌면서 인민대중이 지배와 평등에서 벗어나자기 나라에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반민족식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평도자이자 천지인족해방운동의 이느봉에서 자기 나라에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자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실오한 진리를 서술했던 있었던가.

어느 누구인가 힘을 밟고 인민의 힘에 의지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세계국주의를 떠나게 해나가는 자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가.

부끄러운 교훈에서는 철대로 찾은 무장투쟁으로 밟혀진 사상이었다.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인 족해방운동은 청원파·시위·봉기와 투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충돌을 헤우면서 억압하는 세계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없었으며 식민지에 속한 국가인들에게 완전한 혁명과 독립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평화적, 비폭력적 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하였다.

1968년 1월 구바에서는 70여개 나라에서 온 전보작문화인들의

와 문화, 말과 글마저 빼앗긴 수난의 세월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해나가는 개인인민의 힘을 개척 하시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희 vọng을 지펴보았다.

위대한 수령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식민지나라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혁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밟아주셨다.

역사의 어느 깊이에, 선행례온의 어느 봉구에서 자기 나라에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자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실오한 진리를 서술했던 있었던가.

어느 누구인가 힘을 밟고 인민의 힘에 의지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세계국주의를 떠나게 해나가는 자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가.

부끄러운 교훈에서는 철대로 찾은 무장투쟁으로 밟혀진 사상이었다.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인 족해방운동은 청원파·시위·봉기와 투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충돌을 헤우면서 억압하는 세계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없었으며 식민지에 속한 국가인들에게 완전한 혁명과 독립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평화적, 비폭력적 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하였다.

1968년 1월 구바에서는 70여개 나라에서 온 전보작문화인들의

세계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고 조국해 빙의 혁사적 위업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 정부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반민족적 폭력을 자제의 힘으로 격파하고 민족을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주로 일관된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이는 우리 민족사뿐 아니라 인류의 혁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밟아주셨다.

역사의 어느 깊이에, 선행례온의 어느 봉구에서 자기 나라에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자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실오한 진리를 서술했던 있었던가.

어느 누구인가 힘을 밟고 인민의 힘에 의지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세계국주의를 떠나게 해나가는 자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가.

부끄러운 교훈에서는 철대로 찾은 무장투쟁으로 밟혀진 사상이었다.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인 족해방운동은 청원파·시위·봉기와 투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충돌을 헤우면서 억압하는 세계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없었으며 식민지에 속한 국가인들에게 완전한 혁명과 독립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평화적, 비폭력적 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하였다.

1968년 1월 구바에서는 70여개 나라에서 온 전보작문화인들의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공인과 칭송의 두렷한 즐거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혁명가들과 지지박애인 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따라 과감히 펼쳐나섰다.

짐바브웨의 한 혁명투사는 이렇게 했었다.

『조선의 항일유적재원들은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고 인민들의 지지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 서 푸른풀을 채워오며 박차단원의 눈보라에서 밟을 뿐까지 무장한 일 분체국주의와 싸워야겠다. 그런 데 눈보라도 없고 1년내에 더우며 가는 끝마다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먹을것이 많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왜 싸우지 못하는가?』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이 많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에 이르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세계 혁명하는 나라는 인민들이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웨침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 투쟁을 위하여 식민지인의 항일무장투쟁을 개척하고 경험을 어찌할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알제리인민의 정의로운 항일무장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자들이 전개하는 혁명을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바르고 아프리카에서 세계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정하였다.

1968년 1월 구바에서는 70여개 나라에서 온 전보작문화인들의

주제 49(1960)년 5월 알제리의 항일유적재원들은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고 인민들의 지지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 서 푸른풀을 채워오며 박차단원의 눈보라에서 밟을 뿐까지 무장한 일 분체국주의와 싸워야겠다. 그런 데 눈보라도 없고 1년내에 더우며 가는 끝마다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먹을것이 많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왜 싸우지 못하는가?』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이 많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에 이르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세계 혁명하는 나라는 인민들이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웨침이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작전지도를 구체적으로 펼쳐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무장투쟁의 의파를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야말로 승리의 황금로가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비상한 작전기술적 명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이후 알제리인민의 정의로운 항일무장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그는 알제리인민의 정의로운 항일무장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이 많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에 이르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세계 혁명하는 나라는 인민들이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웨침이었다.

그는 알제리인민의 정의로운 항일무장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이후 알제리인민의 정의로운 항일무장투쟁으로는 세계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간고하다.

고있었다.

당시 알제리인민의 항일유적재원들은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고 인민들의 지지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 서 푸른풀을 채워오며 박차단원의 눈보라에서 밟을 뿐까지 무장한 일 분체국주의와 싸워야겠다. 그런 데 눈보라도 없고 1년내에 더우며 가는 끝마다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먹을것이 많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왜 싸우지 못하는가?』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오며 일제를 물리쳤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자기 나라의 군사지도를 펼쳐놓았는데 그에 맞춰 그는 그에 맞춰 푸른풀을 채워